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32주일
제35권 50호(나해) 2015년 11월8일

[묵사]



<과부의 헌금>

인생은 나그네길 ~

인생을 가리켜 '공수래 공수거'라 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이다.

실상 인간은 하느님 앞에 빈 광주리인 채로 서 있다.
거기에 주워 담고 채워 넣는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은총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각자는 얼마만큼의 정성으로 주님께 봉헌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생명과 축복의 은총을 받게 된다.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오전	8:30
	특전미사(청년미사)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오전	7:30
	학생미사(영어)	오전	9:30
	낮 미사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레지오 마리에	오전 10: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성령기도회	오후 8:00
	울뜨레아(4째주)	오후 8:00
	성소후원회(첫목요일)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오전 10:00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오전 10:00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오후 6:00
	배론청년회 모임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오전 중
	아도라메 성가대	오전 8:30
	글로리아 성가대	오전 9:00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00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후 3:0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진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 이용식 베드로, 권순봉 요안나 (생) 조병준 플로렌시오
주일 낮 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진은란 아네스, 김영식 & 김영자, 김진성 루스 & 김수정 발바라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이종수 마틴, 최병덕 바오로 & 최효선 안젤라,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 안병무 & 유무서 & 안준환 미카엘, 김기준 안젤라, 홍관 요셉, 박정이, 이사범 로벨도 & 이안드레아 & 조마리아, 이필연 마르첼로 & 임규예 분다 & 정을진, 낙태아 들의 영혼, 연옥영혼, (생) 서성용 베드로, 김종렬 베드로 가족, 김기정 루치아 & 김옥보 안나 & 이은경 체칠리아, 김영훈 토마스아퀴나스, 최미나 아네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상(Kings) 17,10-16

화답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9,24-2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음 마르코 (Mark) 12,38-44<또는 12,41-44>

영성제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한국 교회의 역사

1. 교회의 창설 과정

1-1. 교회 창설의 배경

한국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창설될 수 있었던 대내적 배경에는 문화적 분위기와 함께 사회 변동상도 살펴봐야 한다. 조선 왕조는 불평등한 신분제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국가이다. 당시 사회는 양반과 양인(良人), 그리고 노비와 같은 신분에 따른 여러 가지 차별을 당연시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결과로 18 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신분 제도가 급격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당대 많은 사람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바라고 있었으며, 그 평등을 보장해 주는 새로운 이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함을 주창하는 천주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교회 창설의 두 번째 배경으로는 대외적 요인으로 천주교회의 동양 선교를 들 수 있다. 서양에서 종교개혁을 체험한 천주교는 자신의 쇄신을 다지는 한편 동양과 신대륙에 대한 선교를 시도하였다. 특히 예수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 단체들은 일본과 중국 선교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진왜란(1592~ 1598년)이 발생하여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하여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 잡혀 간 조선인 가운데 몇몇이 일본에서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으며, 일본의 박해 과정에서 순교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입교와 순교는 한국사와는 무관하게 전개된 일본 교회사의 한 부분일 뿐, 한국 교회 창설과 직접 연결될 수는 없었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선교사들은 각종 천주교 서적을 한문으로 간행하였는데, 이 한문 서학서(西學書)가 조선에 전래되면서 한국 교회 창설에 직접 계기로 작용한다. 당시 예수회 선교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천주실의」(天主實義)를 지은 마테오 리치(Mateo Ricci, 利瑪竇, 1552~1610년)였다. 그리고 판토하(Pantoja, 龐迪我, 1571~1618년)의 「칠극」(七克)과 같은 책도 비교적 널리 읽혔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목마른 사슴	217	249
봉헌	264	254	255
성체	주품예	303	281
파견	기뻐하며 왕께	181	181

하느님의 충실한 일꾼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가슴을 뜨끔하게 만드는 구절을 만납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율법 학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꾸지람이 오늘날 성직자들을 질타하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처럼 ‘눈에 띄는 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인사와 대접받기 좋아하고 신자들에게 부담 주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하고 말합니다.

성직자들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를 받습니다. 인간처럼 하느님도 편애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느님이 성직자들을 ‘특별대우’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는 일꾼답게 교회 공동체를 전심전력으로 섬기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한 채 하느님을 내세워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부당한 이익을 탐한다면, 일꾼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은 호된 꾸지람과 문책을 면치 못합니다.

하느님의 일꾼인 성직자는 자신이 받는 ‘특별대우’에 우쭐하여 교만과 탐욕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느님은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루카 12,48 참조)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은 하느님이 주신 것으로써, 섬김과 봉사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처럼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또한 제1독서에 등장하는 사렙타의 과부처럼 자신이 지니고 있는 마지막 것

까지도 이웃과 함께 나눌 줄 압니다. 이런 삶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당신 자신을 바치신’(제2독서) 예수님과 일치하여 그분의 능력에 의탁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성직자만 하느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하느님은 세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당신의 사랑 받는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하느님이 세례 받은 이들을 ‘특별대우’하시는 이유는 가정이나 직장 등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데에, 하느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어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희생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는 겸손과 섬김, 희생을 많이 얘기하지만 정작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서로 비난과 비방을 하기 일쑤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묵묵히 겸손과 섬김,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전례력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과연 나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는가를 헤아려 보면서, 그 은총의 힘으로 얼마나 겸손한 사람, 섬기며 희생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 손희송 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민상 요한	이영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신덕례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진수 스테파노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박혜경 레나타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남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11월
위령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관련하여 11월을 '위령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모든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 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제34회 남가주 한인 추수감사절 합동야외미사

- 일시: 11월26일(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준비물 : 불우이웃돕기 1인 1캔 푸드 가져오기
- 점심 : 본당 제공
- 행사당일 오전 10시까지의 공원 입장 무료, 이후는 본인 부담으로 차량 당 \$8.00 입니다.(Carpool 을 부탁드립니다.)
- 2부 행사 : 성당 별 장기자랑
시상 : 1등(\$500), 2등(\$300), 3등(\$200)
- 경품(Raffle)추첨 : 대상(한국왕복 비행기표 또는 \$1000), 1등(최신형 Cuckoo 압력밥솥), 2등(40인치 스마트 TV), 3등(Tablet)
- 장소 : 엘 도라도 팍 El Dorado Park, East
7550 E. Spring St. Long Beach CA 90815
- 미사집전 : Kevin Vann 주교님(오렌지 교구)
- 주관 :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 이날 본당 평일 미사(목 7:30pm)와 예비자 교리 없습니다.
-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 남가주 한인가톨릭 합동위령미사

- 일시 : 11월14일(토)
연도 오후 1시15분, 미사 오후 2시
- 장소 : Holy Cross Cemetery

◆안나회 효도관광(레이크 엘시노어 온천장)

- 일시 : 11월9일(월요일)
- 대상 : 55세 이상(전신자, 남,녀불문), 45명 예정, 선착순
- 회비 : \$30(1인), \$40(부부 또는 가족2인)
- 출발 : 오전 7시 30분, 오후 6시 도착 예정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묵주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 (310)781-0021

◆요셉회 모임

- 일시 : 11월15일(주일)11시 미사후
- 장소 : 강당
- 당일 특별 음식이 준비되어있으며, 영화관람(사도)도 있을 예정입니다
- 문의 : 정기은 비오 ☎ (310)780-2789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 8일 * 토복1,2반 : 홍합 미역국 (\$3),
* 주일학교 : 빵 과 스프 (4,7학년)
- 11월15일 * 하버/카슨 : 수제미국 (\$3),
* 주일학교 : 커리 라이스 (6학년)

지난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인모 김대우 김상규 김상근 김선제 김양금 김여순 김윤진 김인성 김재영 김정웅 김정희 김종렬 박씨니 박종열 방정복 송기철 송영미 신경훈 오일순 유영균 이경태 이근모 이영석 이영희 임연조 장은희 전정일 정지숙 조준제 주용순 한장환 한창주 한력수 홍광선 황인종 합계:\$4,130	강인모 김대우 김선제 김양금 김정희 박씨니 방정복 신경훈 유영균 이근모 이영희 정지숙 조준제 주용순 한장환 한창주 한력수 홍광선 황인종 합계 : \$1,530
주일미사 현금 :\$2,496 주일학교입금 : \$ 100	감사헌금: \$500(황인종, 알렉스한, 김옥) 2차헌금: \$ 507

◆주일학교 첫 영성체 반 학부모 간담회

첫 영성체 받는 아이들과 부모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것들에 관해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기 원하오니, 첫 영성체를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께서서는 필히 간담회에 참석하여주시어, 아이들이 첫 영성체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오늘 주일 (8일) 9시30분 학생 미사 후
- 대상: 첫 영성체 반 학생들 학부모님
- 장소: 2학년 교실

◆F.I.G.S. Jr. 중등부 락인

- 일시: 11월13일 (금)7:00pm - 14일(토) 10:00am
- 대상: 주일학교에 등록되어있는 중등부 학생들
- 체크 인: 저녁 7시
- 장소: 103위 한인성당
- 준비물: 침낭, 세면도구, 여벌 옷, 자켓
- 신청 마감일: 11월 8일 주일

“세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성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안내

- 일시 : 11월15일 (주일) 낮 1시~5시
11월16일(월) 저녁 6시~10시
양일중 하루를 택하여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 교육방법 : 첫날 3시간 강의 후 1시간실습
이후 1달 이내 10회 실습
- 장소 : 성 아그네스 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 CA 90007
- 문의 : 사무실 ☎(323)731-4433

◆LA 골롬바의 집에서 인보 성체수도회 수도자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지내실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 장소 : 248 S. Mariposa Av. L.A. 90004
- 담당:공 테레사 수녀
☎213-389-7760 / 213-785-1147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안내(9개월간)

- 일시 : 2015년 9월 ~2016년 6월
- 주관처 : Loyola Institute for Sprituality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480 S Batavia St Orange,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213)507-1144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차 장		박영희 아가다 422-1119	
차 장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메테임 안나 991-4838 11/10(화) 오후 6시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김정웅 요한 11/21(토) 오후 6시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11/20 (금) 오후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김대우 비오 378-8763 11/14(토)오후6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손석 스테파노 11/14 (토) 6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윤선희 로사 11/14(토) 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최옥희 테레사 11/20(금) 오후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11/17(화) 11시, 성당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송 미카엘라 850-2822 11/14(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정병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최기호 스테파노 11/9(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윤진 가타리나 749-3151 11/7 (토) 7시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11/13(금)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11/13 (금)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김명숙 루실라 11/7(토) 11시 강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11/10 (화)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회장단 회의	오후1시
--------	------

못난 아버지

우리 집 작은아들은 중학생이다. 학교에서 이른바 ‘문제아’로 불릴 정도로 방황의 시간이 길었다. 늘 착하다고만 생각했던 내 아들이 어떻게 ‘문제아’가 되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야단만 쳤던 못난 아버지가 바로 나였다.

시험이나 그 어떤 자격증도 없이 그냥 자연스레 입게 된 아버지라는 옷.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만 없으면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사춘기 아들의 방황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어긋나기만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별다른 해결책 없이 지켜보는 나의 마음은 늘 고통스러웠다. 아마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부지불식간 나의 마음속에도 깊이 스며 있었나 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생각을 바꿈으로써 기적 같은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아들의 시각으로 생각을 바꾸고 대화를 나누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우리 가정을 위해 바치는 기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2년이란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런 노력으로 나와 아들 사이에 놓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결과, 최근 아들 학교에서 우리 부자(父子) 관계가 문제 자녀와의 관계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극복한 모범사례로 선정될 만큼 달라졌다. 못난 아버지인 내가 바꿈으로써 가능한 변화였다.

이렇게 부끄러운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는 까닭은, 자식의 문제는 결국 아버지인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른 아버지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그 동안 내 아이를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이의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소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의 어린 시절, 주일마다 부모님과 함께한 미사참례와 주일학교 등을 통해 알게 모르게 신앙의 뿌리가 싹트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과 성가정의 행복을 얻게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정작 내 아이들에게는 학교와 학원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당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음을 깨달은 것이다.

아이들에게 성 가정 안에서 참 신앙을 느끼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모 됨의 시작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큰 유산일 것이다.

◆ 전영주 마오로 / 교구 평협 교육전례부장

변하지 않는 것들과 변하고 마는 것들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우리 민족 말살정책들은 종류가 다양하였고 그 강도 역시 매우 대단했다. 오죽하면 창씨개명까지 시켰으니 일본은 한국을 영원히 지배할 줄로 착각했던 듯하다. 아마도 친일행각을 한 사람들도 해방이 오리라 짐작을 못했기 때문이리라. 그러한 일제도 고치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공동묘지 조성이다. 조상 묘를 중요시 않게 만들어서 역사적 맥락을 끊어버리려 시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박정희 유신정권도 가정의례준칙을 만들어 전통혼례를 못하게 하고, 장례에서 상여와 굴건제복을 금지시켰으며, 설날도 구정이라 하여 없애고 대신에 양력 신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일제와 유신정권의 정책들이 사회에 통용되고 있었다. 공동묘지라는 이름으로 공동묘지가 조성되고, 화장하여 봉안당이 성행하며, 전통혼례는 오히려 드문 구경거리인데 상복은 나날이 패션이 달라지고 있으니 대체 누가 시켜서 이렇게 변하는 걸까?

강제적인 권력이나 법제화 때문이 아니라 삶의 형태가 바뀌니 관습들도 그에 맞게 저절로 변했던 것이다. 갈대와 같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진화하는 인간의 살아남는 방식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인간 삶의 자리는 계절처럼 늘 변하기 마련...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란 계절을 갈마들게 만드신 하느님의 창조질서일 뿐일 터이니!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변하고 마는 것들의 허무함을 타하는 이유는 하느님께 귀속하는 기도의 시기, 위령 성월 때문인가.

◆ 조옥종 신부 / 로사리오의 집

위령기도란 무엇일까요?

[교리상식]

이 세상에서 보속(죄로 인한 나쁜 결과를 보상하는 일)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고통 중에 있는 연옥 영혼을 위해 하는 기도를 ‘위령 기도’라고 합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은 스스로 천국에 올라갈 수 없고 연옥의 고통을 덜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교우들이 기도와 희생으로 그들이 빨리 천국에 오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 「예비 신자 궁금증 105가지」 / 가톨릭출판사

[기도묵상]

사는 동안 우리는 투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선한 영이 우리 안에 거처하신다는 표징입니다.

죽음이 당신을 승리자로 보지 않더라도, 당신을 전사로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 -

우정과 의리의 사람, 요나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되는 인물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첫 만남부터 다윗의 인품에 마음이 끌려 그를 자신의 목숨처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살아남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요나탄은 다윗과 의형제를 맺고 평생 의리를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요나탄은 그 징표로 무엇을 건네주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무엘 상 18,1-5

사울왕은 백성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군대와 함께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손 북을 치고 환성을 울리며,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 임금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자, 사울은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탄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아버지 사울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무엘 상 19,1-7

요나탄의 진정한 충고에 귀를 기울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요나탄은 다윗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요나탄에게 감사를 전하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요나탄은 다윗에게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다윗도 요나탄의 이러한 마음에 탄복하고, 은혜를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요나탄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요나탄이 전사한 후 다윗은 눈물을 흘렸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며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무엘하1,17-27

다윗에 대한 요나탄의 우정과 사랑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는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왕자임에도, 다윗이 큰 인재임을 알아보고 왕위를 양보했습니다. 요나탄은 개인 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했고, 우정을 지킬 줄 아는 매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 사울의 말대로 다윗을 처형하는 데 협조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요나탄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정과 의리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요나탄은 아버지 ()에게 다윗을 좋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의 신하 다윗에게 ()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께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가 한 일은 임금님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사무 19,4)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처럼 사랑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랑으로 다윗에게 다시()하게 하였다.

(1사무 20,17)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발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6

써니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애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할을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JKim@LACatholicCemeteries.org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암**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켈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웁(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배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Lic#0I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